

유럽 각국문학사 서술의 경과와 문제점¹⁾

조 동 일

1. 머 리 말

자국문학사 서술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전례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각국문학사 서술의 양상을 고찰하기에 앞서 유럽의 전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럽 각국문학사 서술은 18세기에 시작되었다. 18세기에 이루어진 최초의 문학사에서 오늘날의 문학사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저술이거나 특별히 거론할 필요가 있는 것들의 목록을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²⁾

프랑스·영국·독일에서 문학사 서술의 앞선 성과를 보여주었고, 필자가 책을 읽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그 정도이므로, 그 세 나라에서 이루어진 각국문학사 서술의 특히 두드러진 성과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문학사 서술이 이루어진 시기는 18세기, 19세기, 1945년까지의 20세기 전반기, 1946년 이후의 20세기 후반기로 나눈다. 네 시기 문학사의 목록을 먼저 제시한다. 괄호 안의 숫자는 출간 연대이고, 마지막의 숫자는 책의 권수이다.

1) 이 논문은 1991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 지원 연구과제 <한국·중국·일본·월남문학사 서술의 기본양상 비교>의 일부이다. 동아시아 각국문학사를 검토하기 위해 유럽의 전례를 먼저 살펴 서장 부분이다.

2) Robert Escarpit, "Histoire de l'histoire de la littérature", *Histoire des littératures III* (Paris: Gallimard, 1977)에서 문학사 서술의 경과를 논하고 목록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목록에 여기서 다루는 문학사가 다 들어있지는 않다.

18세기

- (1) Denis-François Camusat, *Bibliothèque française ou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프랑스 서지 또는 프랑스 문학사) (1723)
- (2) Thomas Warton, *The History of English Poetry from the Twelfth to the Close of the Sixteenth Century*(12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영국시사) (1774~81) 3, (1790) 4³⁾
- (3) Erduin Julius Koch, *Compendium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von den ältesten Zeiten bis auf Lessings Tod*(가장 오래된 시기부터 Lessing이 죽을 때까지의 독일문학사 개요) (1790~98)

19세기

- (4) Georg Gotteried Gervinus, *Geschichte der poetischen Nationalliteratur der Deutschen*(독일인의 시적 민족문학사) (1835~42) 5
- (5) Alfred Michiels, *Histoire des idées littéraires en France*(프랑스 문학사상사) (1840)
- (6) Désiré Nisard,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불문학사) (1844~61) 4
- (7) Hippolyte Taine, *Histoire de la littérature anglaise*(영문학사) (1864) 5
- (8) Wilhelm Scherer,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독문학사) (1883)
- (9) Karl Goedeke, *Grundriß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Dichtung aus den Quellen*(자료로 본 독문학사 요강) (1884~1913) 10
- (10) Gustave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불문학사) (1894)⁴⁾

20세기 전반

- (11) L. Petit de Julleville 외, *Histoire de la langue et la littérature française*(프랑스어 문학사) (1900) 8
- (12) W.A. Ward 외, *Cambridge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영국문학사) (1907~16) 15
- (13) William Henry Hudson, *An Outline of English Literature*(영문학사 개요) (1913)
- (14) Albert Thibaudet,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de 1789 à nos jours*(1789년부터 오늘날까지의 불문학사) (1936)

3) 원래 3권이었고, 저자 사후에 증보판이 나와 4권이 되었다.

4) 번역판이 G. 방송·P. 토프로 풍자, 정기수 역 『방송문학사』(서울: 을유문화사, 1983)이다.

20세기 후반

- (15) Georg Lukacs, *Skizze einer Geschichte der neueren deutschen Literatur*
(독일근대문학사 개요) (1953)⁵⁾
- (16) David Daiches, *A Critical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영문학의 비평
적 역사) (1960) 2⁶⁾
- (17) Pierre Abraham 외, *Manuel d'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불문학
사 편람) (1965, 1971~82) 7⁷⁾
- (18) Albert C. Baugh 외, *Literary History of England*(영국문학사) (1967)⁸⁾
- (19) Jean Charles Payen 외, *Littérature française*(불문학) (1970) 16
- (20) W. Beutin 외, *Deutsche Literaturgeschichte*(독문학사) (1979)⁹⁾

2. 문학사 서술 개척기의 의욕

(1)과 (3)은 “문학사” (*histoire littéraire*, *Literaturgeschichte*)라는 말이 책 표제에 들어가 있기는 해도 아직 문학사다운 내용은 갖추지 못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문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 도서의 목록을 작성하고 해설한 책이 거듭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이다.⁹⁾ “*histoire littéraire*”로 “문학사”보다 범위가 넓은 “문헌사”를 지칭했다. 우리 쪽의 《增補文獻備考》 같은 것을 개인 저술로 거듭 마련한 셈이다. 독일에서 내놓은 (3)도 기본 성격이 다르지 않아, 《가장 오랜 시기부터 해성 이 죽은 때까지의 독일문학사 개요》라는 제목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독일문학사 서술의 내력을 논할 때 거론되지 못하기 일쑤이다.¹⁰⁾

- 5) 번역판이 게오르크 루카치 저, 반성완·임홍배 역, 《독일문학사, 계동주의에서 제 1 차세계대전까지》(서울: 심설당, 1987)이다.
- 6) 번역판이 테이비드 테이쉬즈 저, 김용철·박희진 역, 《영문학사》(서울: 종로서적, 1988)이다.
- 7) 1965년에 나오기 시작하다가, 1971~82년의 수정판이 7권으로 완간되었다.
초판은 보지 못하고 수정판만 이용한다.
- 8) 번역판이 볼프강 보이턴 외, 허창운·윤세훈·홍승룡 역, 《독일문학사》(서울: 삼영사, 1988)이다.
- 9) Daniel Madelenat, “Savoir”, Pierre Brunel 외, *La critique littéraire* (Paris: PUF, 1977) pp. 33-34에서는 그런 저술을 여럿 들고, 문학사 서술의 선사 시대를 탐구하는 고고학의 연구대상이라고 했다.
- 10) Edgar Marsch 편, *Über Literaturgeschichtsschreib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유용한 사례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규정될 따름이며,¹¹⁾ 오늘날 거의 잊혀졌다. 그런데 참고자료 집성으로 문학사 서술을 대신하는 작업이 그 뒤에도 이어져 (9)와 같은 거작이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문학사는 문학의 자료를 시대순으로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학의 발전 과정을 정리해 논해야 한다. 그런 요건을 갖춘 최초의 문학사는 (2)이다. 그 책은 문학사를 일관되게 서술했다기보다는 문학사에 관한 여러 문제를 논한 논문을 모았다고 할 만한 내용이어서 분량은 많고 체계는 서지 않으나, 문학의 발전에 관한 뚜렷한 주장을 표방해서 주목된다. 저자 서문 첫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련됨이 최고 경지에 이른 시대에서는, 과학의 성장을 사랑하고,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이한을 추적하면서 사회생활의 발전을 음미하기에 바쁜, 그런 종류의 호기심이 생겨난다.¹²⁾

그러한 발전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문학이 특별한 의의를 가지므로 자기는 문학사를 쓴다고 했다. 책 표제에서 “poetry”라 한 것은 문학을 뜻한다. “literature”라는 말 대신에 “poetry”를 택해서 광의의 문학이 아닌 협의의 문학을 지칭하고, 시는 물론이고 산문까지 포함시켜 논했다. 취급하는 대상을 “our national poetry”라고 했는데, 그 말은 “우리 민족문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조잡한 기원이나 불분명한 시발에서부터 세련된 시대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문학의 발전을 추적하는 작업이 흥미롭고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¹³⁾ 문학은 창조된 시대를 가장 충실히 나타내주고, 풍속을 가장 나체롭게 표현하며, 어느 나라에서도 최고의 기념비적 창작은 시인의 작품이라고

11) Dieter Gutzentz, *Einführung in die deutsche Literaturwissenschaft* (Berlin: Erich Schmidt, 1976), p. 290.

13) 원문을 들면 “In an age advanced to the highest degree of refinement, that species of curiosity commences, which is busied in contemplating the progress of social life, in displaying the gradations of science, and in tracing the transitions from barbarism to civility” (London: John Russell Smith, 1871년판, vol. 1, p. 3)라고 했다.

14) 원문을 들면 “...to pursue the progress of our national poetry, from rude origin and obscure beginnings, to its perfection in a polished age, must prove an interesting and instructive investigation”(같은 곳)이라고 했다.

했다.

그런 주장에 18세기에 이르러서 영국 시민계급이 역사상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다는 자부심이 잘 나타나 있다. 고대인이 이룩한 문화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복고주의가 청산되고, 근대인이 고대나 중세에는 생각하지 못한 발전을 성취했다는 진보주의가 자리잡으면서 역사서술이 필요해졌다. 발전을 확인하는 역사서술을 하는 데 문학이 커다란 의의가 있다는 주장을 문학사를 실제로 써서 입증했다. 고대의 규법 대신에 근대의 발전을 평가하는 작업을 문학을 통해 구체화하기 위해서 유럽문학사와 각국문학사가 둘 다 마련해야만 되었다. 그런데 유럽문학사는 Madame de Staël, *De la littérature considérée dans ses rapports avec les institutions sociales*(사회제도와 관련시켜 고찰해본 문학에 대하여) (1800)에서 처음 선보이고, Friedrich Shlegel, *Geschichte der alten und neueren Literatur*(신구문학사) (1815)에 이르러서 제대로 갖추어졌으며, 그보다 앞서 각국문학사의 첫번째 본보기가 영국에서 이미 마련되었다. 그 이유는 근대로의 이행에서 영국이 특별히 앞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의 저자는 Thomas Warton은 영국의 발전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논하지 않았으나, “our national poetry”가 발전의 증거이자 표현임을 강조해 말하면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앞섰다는 자부심을 나타냈다. 영문학이 원래부터 자랑스러웠다고 한 것은 아니다. Saxon어를 사용하던 시대에는 동매하고 문학도 대단할 것이 없었으며, Norman 정복을 당할 때에도 영국인은 세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12세기 이후에 민족문학의 형성과 발전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이후의 문학사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학의 발전을 민족어의 성장과 긴밀하게 연결시켰으며, 라틴어문학은 논외로 했음은 물론이다. Thomas Warton은 옥스포드대학 시학교수여서 당대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다. 방대한 분량 3권으로 나오고, 나중에 한 권 추가된 최초의 영문학사가 이웃 나라에까지 큰 자극을 주었다.

초기의 문학사는 문학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학은 역사 발전의 증거이거나 정신적 가치의 구현이므로 소중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였다. 19세기 전반기 문학사인 (4)•(5)•(6)에서 그런 견해가 더욱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나타났다. (4)의 저자 Gervinus는 다섯 권이나 되는 방대한 독문학사를 쓰기에 앞서, “문학사가는 예술비평가와 함께 할 일이 거의 없다”고 선언했다.¹⁵⁾ 문학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고, 문학사에서 독일민족사의 종체적인 모습을 찾으려 했다. 자기가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문학에서 구현되어 독일 민족이 정신적으로 위대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을 열망했다. (5)의 저자는 문학을 통해서 사상사의 전개를 깊이 있게, 또한 체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했다. (6) 또한 문학을 그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 정신적 가치에 관한 자기 주장을 구현하는 자료로 했다.

(6)의 저자 Nisard는 프랑스 학제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자기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방대한 규모의 불문학사를 저술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거듭 시비 거리가 되고 있다. 세 가지 이상을 추구하자는 것이 기본관점이다. 인류의 보편적 정신, 프랑스인의 재능, 프랑스어의 가치를 문학사 서술을 통해서 찾아내겠다고 했다. 17세기 문학의 조화로운 정신이야말로 세 가지 조건에 다 합치된다 하고, 그 이전의 문학은 준비기에, 그 후의 문학은 쇠퇴기에 해당된다고 했다. 17세기 고전주의 문학을 그렇게 평가한 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사조 낭만주의와 배치된다. 그래서 독단적이라는 평을 들었으며, Sainte-Beuve는 “초월적 극수주의”(chavinième transcendental)라고 명명했다.¹⁶⁾ 국수주의라고 했지만 프랑스 정신의 배타적 가치를 주장한 것은 아니고, 인류의 이상을 프랑스인이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가치의 보편성과 문학사 서술의 일반 원리가 자국문학의 의의를 입증해 준다고 했을 따름이고, 특수성을 가치 평가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다.

(7)의 저자 Taine는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는 애국주의마지 거부하고, 보편성뿐만 아니라 특수성까지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문학사 서술의 방법을 확립하려 했다. 길게 이어지는 서론에서 한 달 가운데 우선 백년 전부터 독일에서, 60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역사학이 변모

15) “Prinzipien ein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sschreibung”(1833)에서 한 말이다. 원문을 들면 “Mit ästhetischer Kritik hat der Literaturhistoriker gar nichts zu tun”이라 했다. (Edgar Marsch 편, *Über Literaturgeschichtsschreibung*, p. 128)

16) Pierre Brunel 외, *La critique littéraire*, p. 41.

한 것은 문학연구 덕분이라고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학사 서술이 시작되어 문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던 데 그치지 않고, 역사 이해를 위해 크게 기여한다고 한 것이다. 문학이 역사 이해를 위해 특히 유용하므로 문학사가 일반 역사 서술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고 보았다 해도 좋다. 그 전까지 여러 문학사가 거의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을 아주 명료하게 구체화해, Tain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학작품이란 상상력의 단순한 장난이나, 어느 누가 뜨거워진 머리로 혼자 변덕을 부린 것이 아니고, 작가 주변의 풍속을 반영하거나 어떤 정신상태를 표출한다. 그래서 문학의 기념물에 의거하면, 몇 세기 전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낀 방식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런 시도를 하다가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다.¹⁷⁾

문학연구의 방법과 의의를 한꺼번에 지적한 말이다. 문학작품을 우연한 상상물로 고립시켜 다루지 말고 그것이 산출된 사회나 그 시기의 사상과 관련시켜 고찰해야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오래 전의 사회나 사상을 알아내는데 문학작품이 출중한 증거가 된다고 했다. 문학과 외부적 조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문학에서 증거를 얻어 외부적 조건이라는 미지수를 풀 수도 있고, 외부적 조건을 근거로 해서 문학의 특징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학의 특징을 산출하는 외부적 조건을 “인종”(race), “환경”(milieu), “시대”(moment)라고 했다. 그 세 조건을 든 것 때문에 널리 알려진 Taine는 지나치게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진 외부적 조건 결정론자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문학과 외부적 조건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개별 작품 차원에서 문학 일반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그 세 가지 요인을 작업가설로 삼아 구체

17) 원문을 들면 “On a découvert qu'une oeuvre littéraire n'est pas un simple jeu d'imagination, le caprice isolé d'une tête chaude, mais une copie des moeurs environnantes et le signe d'un état d'esprit. On en conclu qu'on pouvait d'après les monuments littéraires, retrouver la façon dont les hommes avait senti et pensé il y a plusieurs siècles. On l'a essayé et on a réussi”. (Paris: Hachette, 1921년판, vol. 1, p. V)라고 했다.

적인 검증을 하고자 했다.

“인종”, “환경”, “시대”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종”이다. “환경”은 자연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했다. “시대”는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개념이다. “인종”은 민족에 따른 다른 “내면적이고 유전적인 성향”이라 하고, “기질이나 신체의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했다.¹⁸⁾ 그런데 그런 “인종”的 조건과 문학의 특질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지 않고, 문학사 서술을 실제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비로소 알아낼 수 있다고 했다. 결정론의 명제가 아닌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그래서 문학사 서술은 “어느 민족의 심리”(la psychologie d'un peuple)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환경”이나 “시대”라는 개념이 사회구조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쉽사리 비판할 수 있듯이, “인종”이란 낡은 관념이라고 논단하는 데 별 반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인종”과 문학사의 관계를 객관화해서 검증하려는 의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서 미해결의 과제가 무엇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 여러 문학사가가 각기 자국문학의 발전을 친양하고 우수성을 평가했다. 문학사 서술이 그런 의미의 애국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문학사 이해의 보편적 원리를 무시하고 민족성 우월론의 관점에서 자국문학의 우수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¹⁹⁾ Taine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데 동의하면서 논의를 객관화하고 결증을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프랑스인이 스스로 프랑스문학의 “인종”적 특징을 살피는 것은 객관적일 수 없고, 애국주의적 우월감을 은연중 나타내는 폐단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검증의 대상을 바꾸었다. 희랍문학은 대단하지만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고, 독일문학은 중간에 공백이

18) “Ce qu'on appelle la race, ce sont les dispositions innées et héréditaires que l'on nomme apporte avec lui à la lumière, et qui ordinairement sont jointes à des différences marquées dans le tempérament et dans le structure du corps. Elles varient selon les peuples”이라 했다. (같은 책, p. XXII)

19) 유럽문학이 아닌 다른 문명권의 문학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을 차별하는 주장이 쉽사리 나타났다. C.H. Letourneau, *L'évolution littéraire dans les diverses races humaines*(1894) 같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있어 적합하지 않다 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아직 살아 있으면서 적 점 관찰하기 쉬운 영국문학이 가장 적합한 검증 대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영문학사를 썼다.

Taine의 문학사는 스스로 생각한 것만큼 객관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환경”과 “시대”가 문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타당한 논의를 전개할 만한 이론이나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주관적 인상에 적지 않게 의존해야만 되었다. “인종”과 관련시켜 문학을 논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과 더욱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환경”과 “시대”에 관해서는 그 뒤에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고 이론의 발전을 보게 되었지만, “인종”과 결부된 논의는 민족성 우열 비교나 인종 차별의 편견으로 치닫거나 했을 따름이고, 더욱 타당한 이론으로 정비되지 못했다. “인종”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기 알맞으므로 “민족적 전통”이라고 고쳐 부르기로 하고, 그것과 관련된 각국문학의 특질을 밝히기로 한다면, Taine가 시도한 과업이 새삼스러운 의의가 있다.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 더욱 타당한 연구를 하는 데 힘쓰지 않을 수 없다.

Taine의 실증주의가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크게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한 마르크스주의 문학론은 “환경”이나 “시대”에 관해서 현저한 진전을 이룩했지만, “인종”에 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인종적 편견을 불식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고 세계사의 보편성에 입각해 각 민족의 역사가 각기 독특하게 전개되었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데 힘썼을 따름이다. “민족적 전통”을 새롭게 논하는 이론을 마련하지 못하고 민족의 의의를 부당하게 축소했다. 민족이란 근대 시민사회의 산물이며,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사회주의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민족적 형식”이 필요하다고 했을 따름이고, 민족문학이 세계문학의 구성 단위로서 지속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1770년대의 Warton에서 시작해서 1860년대의 Taine에 이르기까지 백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유럽에서 이루어진 각국 문학사는 근대 시민계급의 이념 작성성을 잘 나타냈다. 근대에 이르러서 역사의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진보사관을 마련하고, 문학은 그 자체로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사상이나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역사 발전의 총체적인 도습을 보여준다는 포괄적인 문학관을 갖추고, 자기 민족국가의 문학이 지닌 특징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긴요한 과업으로 삼았다. 문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실증주의를 확립한 같은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분발했다. 이론이 미비하고 논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무리한 주장은 앞세우는 폐단이 있었다 하겠지만 의욕은 대단했다.

3. 19세기말의 정리 작업

그런데 1880년대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문학과 역사, 문학과 사회, 문학과 민족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의제이던 노동이 갑퇴되고, 나타난 사실을 착실하게 정리하는 데 만족하는 왜소한 실증주의가 문학사 서술의 주된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시민계급이 진보적인 구실을 잃고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고, 역사 발전의 새로운 주동자 노동계급의 이념을 구현한다 하는 마르크스주의가 문학과 역사, 문학과 사회에 관해 참으로 과학적인 이론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문학론에 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대안이 초보적인 서론에 머무르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문학사 서술을 실제로 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1880년대 이래로 새롭게 써어진 문학사는 거대이론에 대한 애설을 버린 대신에 자료와 사실을 착실하게 정리하는 문헌고증의 실증주의를 제대로 거쳐 딛을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념적인 발언에서 후퇴했다는 비난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장점을 그런 방식으로 갖추려고 했다.

(8)•(9)•(10)이 모두 그 단계의 작업이다. 그 가운데 (9)는 (1)과 (3)의 전례를 이은 참고자료 집성이어서 10권이나 되는 분량이지만 그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8)의 독문학사와 (10)의 불문학사는 둘다 단권이지만 그 대까지 밝혀진 사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응축시켜 놓은 노력이며, 실증주의의 장점을 유감없이 나타내 인구사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며, 오랫동안 교과서로 이용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8)의 저자 Sherer와 (10)의 저자 Lanson은 문학사 서술의 전범을

마련한 공적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 전에 이미 여러 편짜리 문학사가 거듭 나왔는데 Lanson이 새삼스럽게 (10)의 서문 첫 머리에서 문학사를 쓰는 일이 사람의 일생을 다 바쳐도 가능한가 하고 반문한 것이²⁰⁾ 그 수고를 안다면 지나치다 할 수 없다.

Sherer는 문학연구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 형의상학적 전제에 의거하는 관념적 학풍을 철저하게 배격했다. (8)에서 당대 학문의 동향을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이상학의 간섭은 무익하다.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아무 것도 마련하지 못했다. 정신과학에서나 자연과학에서나 형이상학은 일반적인 관심이나 불려일으키면서 각 영역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몇 십년 동안 미학이든 심리학이든 헛되이 휘두르면서 진정한 관찰과 연구를 위축시켜 왔다. 그렇지만, 문헌학적이고 역사적인 학문이 그런 형의상학에 대해 의도적인 항거를 하면서 그 힘을 약화시키고, 신학적 경향을 배격한다.²¹⁾

문헌학적이고 역사적인 학문인 문학사연구가 시작된 것 자체가 형이상학에 의거하는 학풍에 대한 반론 제기이다. 그러나 문학사 서술에 아직도 형이상학의 잔재가 남아 있고, 허황된 관념이 불식되지 않고, 미학이니 심리학이니 하는 것에 이끌린 문학론이 문제이므로 반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했다. 형이상학 청산은 자연과학에서 모범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전례를 따라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Sherer는 자연과학의 방법을 문학사에 바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자연과학에서 이룩한 과업을 정신과학에서는 서로 대조가 되는 방식으로

20) “Une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devrait être le couronnement et le résultat d'une vie tout entière. Mais encore une vie suffirait-elle?”이라고 했다. (Paris: Hachette, 1959년판, p. V.)

21) 원문을 들면 “Die Metaphysik sprang vergeblich ein. Sie konnte auch hier nichts Dauerndes schaffen. Sie ha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wie in den Naturwissenschaften nur allgemeine Anregung gebracht, im Einzelnen aber unberechenbaren Schaden gestiftet. Über die Ästhetik und die Psychoholgie übte sie Jahrzehende lang ein unfruchtbare Herrschafft, indem sie die wirkliche Beodachtung und Untersuchung zurückdrängte. Aber schon standen die philologischen und historischen Disciplinen gegen sie in bewußter Opposition und wirkten auf die Theologie herüber.” (Berlin: Weidmannsche, 1922년판, p. 627)라고 했다.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문학연구의 과학화는 그 자체에서 시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론을 했다.

코페르니쿠스 아래로 자연과학이 계산, 실험, 그리고 세련된 관찰의 방법으로 갑작적 진리 인식의 타당성을 보장하려고 애썼듯이, 인문주의자들 아래로 정신과학은 (원전) 비판을 통해 (문학) 전승의 타당성을 보장하려 한다.²²⁾

자연과학이 계산, 실험, 관찰의 방법을 사용해서 진리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성과에 자극을 받아 정신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방법을 반성하는 과제가 19세기 말에 심각하게 제기된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런데 자연과학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얼마 동안 성행하다가, 인문과학은 자연과학과 겨룰 수 있는 독자적인 방법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게 되었다. 선두에 선 Sherer는 문헌전승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원전비판이 인문과학의 독자성을 살리는 기본 방법이라 하고, 그 성과에 입각해 문학사를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런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문예부흥기 인문주의자들 아래로 인문과학에서는 문헌을 연구자료로 삼고 문헌전승의 타당성에 관한 원전비판에 힘써 온 것이 사실이다. 자연과학에서 실험의 방법을 개발했듯이 인문과학에서는 원전비판의 방법을 개발했다고 해도 잘못이 없다. 그러나 “문헌학적이고 역사적인 학문”이라고 규정된 문학연구가 문헌의 변천 검증을 역사적 연구의 과업으로 여기고 그 성과를 문학사 서술의 긴요한 내용으로 삼는다면, 독자성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문학사 서술의 의의를 부정하게 축소했다는 비난을 면 할 수 없다.

(10)의 저자 Lanson도 이와 거의 같은 주장을 했다. 문학사 서술의 방법을 별도로 자세하게 밝힌 글에서²³⁾, 문학사 서술이 과학적인 방법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주관적 인상론이 독단적 관념이나 거창한 체계

22) 원문을 들면 “Strebte die Naturwissenschaft seit Copernicus sie auch durch Rechung, Experiment und verfeinerte Beobachtungsmethoden gegen die Teuschungen der sinnlichen Wahrnehmung sicherzustellen, so suchten die Geisteswissenschaften seit den Humanisten sich durch Kritik gegen die Teuschungen der Überlieferung sicherzustellen”(같은 곳)이라고 했다.

23) “La méthode de l’histoire littéraire”, *Revue du Mois* 10. octobre 1910.. pp. 385-413.

를 갖추고 나타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자연과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다. 19세기 동안 자연과학의 방법이 놀랍게 발전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문학연구에서도 자연과학의 방법을 받아들여 주관적 인상이나 독단적 판단을 배격하는 과학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문학의 실상을 왜곡할 따름이라고 했다.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숫자, 그래프, 공식 등은 문학의 복잡하고 미묘한 속성과는 배치되는 가짜 명증성으로 눈을 속이기나 한다 하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과학도 다른 과학을 후견자로 해서 성립될 수 없다. 어느 과학이든 그 자체의 대상을 따르도록 하는 상호간의 독자성이 보장되어야 발전된다. 문학사가 어느 정도의 과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다른 과학 흥내 내기를 그만두어야 한다.²⁴⁾

그렇다면 문학이라는 대상과 합치되는 문학연구 자체의 독자적인 과학성이란 무엇인가 정면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Lanson은 Sherer와 마찬가지로 문헌연구를 들어 대답했다. 문헌의 신빙성과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서 문헌의 진위에서 작품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아홉 가지로 세분한 연구과제를 들었다. 그런 연구를 자세하게 해서 사실의 차원에서 밀을 만한 문학사를 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긴요한 과업이다. Sherer의 독문학사나 Lanson의 불문학사는 그래서 이루어진 업적이므로 오랫동안 거듭 출판되면서 교과서로 널리 쓰이고, 문학사 서술의 전범으로 높이 평가되어 온 것이 당연한 일이다. 문학연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헌학이어야 하고, 문학사는 문헌비판의 성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데 대해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학은 문헌 이상의 것이다. 문헌이라는 외형 속에 복합하고 미묘한 예술이 담겨 있는데, Sherer나 Lanson이 확립한 방법은 그 점에

24) 원문을 들면 “Aucune science ne se construit sur le patron d'une autre: leur progrès tient à leur indépendance réciproque qui leur permet de se soumettre chacune à leur objet. L'histoire littéraire, pour avoir quelque chose de scientifique, doit commencer par s'interdir toute parodie des autres sciences, quelles qu'elles soient”라고 했다.

대해서 무력하다. 둘 다 문현학으로 일관된 문학사를 쓰지는 않았으면서, 문현학 이상의 작업은 어떻게 했는지 해명하지 않았다. 문현 사례 집성으로 일관한 (9)와는 다르게, Sherer나 Lanson의 문학사는 작품을 이해하고 문학의 흐름을 해설하는 관점이 적절하고 서술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서 널리 이용되는데, 문현학의 방법만 들어서 그 의의를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 Lanson은 문현학 이상의 작업을 한 방법은 과학이 아니고 취미의 영역이라 했다. 과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객관화 할 방도도 없는 디묘한 느낌을 받아들이는 취미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고 (10)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학은 예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품을 도외시할 수 없으며, 작품은 무한히 그리고 규정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해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형식을 다 파악했다고 자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문학은 (학문적) 인식 대상이 아니고, 훈련이고, 취미이고, 즐거움이다. 문학은 알고, 가르치고 할 수는 있으며, 창작하고, 육성하고, 애호할 대상이다.²⁵⁾

이 말은 문학연구가 학문으로 성립할 가능성은 스스로 부정했다. 문학에는 양면이 있어, 문학이 문현으로 존재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 하지만, 문학이 예술인 면모는 학문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학연구가 독자적인 대상과 방법을 갖춘 학문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한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문현에 관한 고종은 문학이 문학다운 점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자연과학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초보적인 실증주의에 의거하므로 그 방법 또한 독자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대상이나 방법이 독자적일 수 없는 문학연구는 학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학 작품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한히 그리고 규정할 수 없이 예민해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형식을 다 파악했다고 자부할 사람

25) 원문을 들면 “En littérature, comme en art, on ne peut perdre de vue les œuvres, infiniment et indéfiniment réceptives et dont jamais personne ne peut affirmer avoir épuisé le contenu ni fixé la formule. C'est dire que la littérature n'est pas objet de savoir: elle est exercice, goût, plaisir. On ne la *sait* pas, on ne *l'apprend* pas: on la pratique on la cultive, on l'aime” (Paris: Hachette, édition remaniée et complétée, 1959년판, p. VIII)라고 했다.

이 아무도 없다는”데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알 수 없으면 알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난점을 조금씩 해소하면서 타당한 인식을 하나씩 축적하는 것이 가능한 최상의 방법임을 미리 부정해 문학연구의 성립 가능성마저 부인하는 폭언을 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Lanson이 문학사를 실제로 서술한 내용을 보면 문학이 문학다운 점에 관해서도 적절하고 타당한 판단을 내려 무리하지 않은 전개를 했으니 위와 같은 논단이 지나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Lanson의 논법을 따르면, 그것은 훈련이고 취미인 문학 이해 능력이 우연히 잘 갖추어진 결과일 따름이라고 해야 한다. “문학은 알고, 가르치고 할 수는 없다”고 했으니 그 책의 독자도 Lanson과 같은 경지에 이르도록 할 방도가 없다. 그렇다면 문학사를 쓴 것도 문학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Lanson이 문학의 예술적 성격을 그렇게까지 존중하고 문학연구의 의의를 지나치게 낮춘 것은 당대에 유행한 인상비평에 침울한 탓이다. 한편으로는 과학적이라는 실증주의를 견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이기를 거부하는 인상비평에 동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중의 태도에 심각한 파탄이 내포되어 있다. 파탄을 수습하고 문학연구가 학문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문학과 예술이 둘이 아님을 입증하고,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함께 수행하며, 문학사에서 문학에 대한 총체적이며 개별적인 연구가 합치되게 하는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했는데, Lanson 이후 유럽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문학사 가운데 과연 거기까지 나아간 것이 있는가 의문이다. 대개는 Lanson의 결충에 내포되어 있는 파탄을 외면하고, Lanson의 문학사가 문학사의 전범이라 하면서 그보다 확대되거나 축소된 저술을 하는 데 만족했다.

19세기 동안의 진통을 거쳐서 문학사 서술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드러나고 힘들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었다 하겠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새삼스럽게 분발하는 야심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해결의 과제를 덮어둔 채 안이한 자세로 교과서용 문학사나 적당히 만들어내기 일쑤였다. 문학사의 이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근대 시민사회를 이루하는 포부와 정열은 감퇴되고, 역사 발전을 새롭게 주도하는 움직임이 문학사 서술까지 혁신할 계제는 아니었다. 근대 시민사회의 모순과 침체를 극력 비판하면서 새로운 역

사 창조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한 마르크스주의는 문학원론의 기본명제나 거듭 시비하거나 하고 문학사 서술을 실제로 감당하지는 않아 기대하라고 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4. 20세기 전반기의 새로운 시도

20세기가 시작되자 시도된 새로운 작업은 문학사를 길고 자세하게 쓰는 것이었다. (11)에서는 프랑스 언어와 문학의 역사를 크고 두꺼운 책여덟 권으로 정리했다. (12)로 나온 영문학사는 열다섯 권이나 된다. 되도록 많은 사실을 자세하게 다루어 방대한 문학사를 서술하는 작업을 여러 나라에서 다듬어 하고, 여러 차례 거듭 했다. (17)·(18)·(19)에서 그런 작업을 다시 했다. 19세기까지의 문학사는 설사 여러 권으로 이루어졌어도 한 사람이 썼다. (9) 같은 것은 예외이고, 나머지는 모두 길어야 네 권이나 다섯 권이었다. 그 정도가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최대의 분량이다. 그런데 (10)·(12)·(17)·(18)·(19) 등은 모두 공저이고, 그래서 열권 이상 될 수 있었다. 앞에서 제시한 명단에서는 저자 대표이름에다 “외” 자를 보태 공저임을 나타냈는데, 공저를 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한 사람이 맡아 기획·편집을 하고 여러 필자가 한 대목씩 쓰게 한 것이 혼하고, 기획·편집자가 권별로 달라지기도 하고, 한 사람이 한 권씩 쓰기도 했다.

그런 작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여러 필자를 동원하든지, 문학사 서술 방법의 문제점을 일관되게 해결한 통일된 관점은 보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합의만 하고, 각자가 서술한 내용을 보태 내용을 다채롭게 하고 분량을 늘리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다. (12)를 통해서 그 점을 확인해보자. 그 책은 A.W. Ward 와 A.R. Waller라는 사람 둘이서 기획·편집을 담당하고, 한 권에 20개 내외씩 들어간 장별로 각기 전문가를 동원해 집필했다. 수많은 집필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침을 첫 권 서두의 “preface”에서 정리해 제시했다. (a)·(b)·(c)의 세 조항을 들었는데, (b)는 외국문학의 영향을 중요시한다는 것이고, (c)는 참고문헌 목록을 충실히 갖춘다는 것 이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기본방침이 결국 (a)에 요약되어 있으므로

옮겨 보기로 한다.

영문학의 지속적인 운동을 주류와 방계 양쪽에서 서로 연결시켜 설명한다. 이급의 작가들이 몇몇 대단한 이름에 지나치게 가리워지지 않고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겠다는 의도이다.²⁶⁾

이것은 문학사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쓴다는 말이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a)의 내용을 여러가지로 풀이한 후속 설명을 보아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 별반 없다. 문학의 범위를 넓게 잡고, 새로운 자료를 열심히 찾아 넣고, 도움이 될 내용이면 되도록 많이 보태자고 했다. 분량을 확대하는 것이 진요하다 하고, 질적인 평가나 서술 방법에 수반되는 문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영국인다운 경험주의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착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대한 분량으로 영문학이 대단합을 과시하려고 한 의도가 편자 스스로 말하지 않은 가운데 드러난다. 영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영문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의 노고와 협조로 영문학을 빛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랑스러운 유산을 홀륭하게 들보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 대목에서는 영문학을 “our national literature”라고 일컬었다.

도움이 되는 선행업적에 감사하면서 우선 문학사를 처음 서술한 Warton을 높이 평가했다. Taine는 한 나라의 역사 일반은 문학을 통해 연구하는 방법의 의의를 최초로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런 전례를 발전시켜 자국문학사 서술의 거대한 기념비를 이루하는 것으로 자랑을 삼고, Warton의 진보 예찬이나 Taine가 주장한 과학적 방법이 어떻게 재론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밖에도 여러 선행업적을 들면서 (11)에 관해서는 특별히 자기네 작업을 계획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프랑스와 세계제패를 경쟁하는 시대에 영국에서 더 크고 홀륭한 자국문학사를 마련한다고 은근히 과시했다.

문학사를 다시 쓰는 또 한 가지 방식은 확장하지 않고 축소하는 것이

26) 원문을 들면 “A connected account was to be given of the successive movements of English literature, both main and subsidiary; and this was intended to imply an adequate treatment of secondary writers, instead of their being overshadowed by a few great na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0년판, p.v)라고 했다.

었다. 많은 필자를 동원해 길게 쓰는 문학사와는 반대로 저자 한 사람이 짧게 쓰는 문학사가 또한 긴요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방대한 사실 열거 때문에 길을 짧지 않고, 문학사의 일관된 전개를 차자리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없던 단권짜리 짤막한 문학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 좋은 본보기가 (13)이다. “preface”가 있고, 다시 “introductory”가 있어 저술의 의도를 밝힌 것을 보면, 우선 영문학사는 영문학의 총체적인 역사여야 한다 하고, 분명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개별적인 사실을 각기 그것대로 살피고 마는 폐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총체적인 문학사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지만 개인적인 소견을 배제하고는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문학사 자체도 물개성적인 요소와 개성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문학사는 민족국가의 문학사로 특별한 의의가 있다는 것을 (12)에서의 외연 확장과는 다른 내포 집약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 일반적인 영국사는 “우리나라의 전기라면, 문학은 자서전이다”²⁷⁾하고, 그래서 문학사를 통해서 여러 세대에 걸친 내면생활의 동기, 정열, 가치관 등을 직접 체인식 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민은 민족성이 우월하고 문화 전통이 훌륭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한다고 자부하던 시기에 자기 성찰을 위한 거울을 적절하게 마련하는 양식 있고 분별 있는 태도를 미덕으로 삼았다 하겠는데, 기본 논리는 단순하다. 총체성과 개성의 상호작용을 탈하면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시키는 데 그치고, 문학사 서술의 난문제에 관해 새로운 이론으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한 것은 아니다.

(13)에서 영문학사의 시대구문을 하면서 각 시대를 지배한 거장을 내세웠다. Chaucer의 시대에서 시작해서, Shakespeare, Milton, Dryden, Pope, Johnson, Wordsworth, Tennyson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사가 전개되었다고 했다.²⁸⁾ 세계는 영국이, 세계문학사는 영문학사가, 영문

27) 원문을 들면 “Ordinary English history is our nation's biography; its literature is its autobiography” (London: G. Bell and Sons, 1913, p. 7)라고 했다.

28) 그 무렵 Shakespeare는 인도보다 더 소중하므로 차라리 인도를 떠나더라도 Shakespeare는 버릴 수 없다는 차별으로 영국의 인도기지를 당연시하게 하

학사는 그런 거장들이 지배한다는 주장이 온연종 인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급작가들이라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12)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다. (12)로써 대영제국의 영역을 상징했다면, (13)은 그 정점을 보여주는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Shakespeare의 시대에 관한 서술을 보면, 그 때 영국인은 세계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력을 보여주었으며,²⁹⁾ 희랍이나 로마에서 이룩한 경지를 넘어섰다고 했다. 애국심이 대단한 시대였다고 감격하면서,³⁰⁾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저자가 분별없이 흥분했다. 영문학의 여왕 Shakespeare를 세계문학제국의 황제로 받들기 위해 논리를 넘어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4)는 (13)과 상통하면서 또한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불문학사이다. 문학사를 한 권으로 간추려 쓰고 저자의 견해 표명을 주저하지 않은 점은 서로 같다. 그런데 Thibaudet는 문학비평가로서 커다란 구실을 했던 인물이며, 불문학 자체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촉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문학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문학사를 썼다. 문학사 서술이 Lanson과 더불어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구체화하고, Lanson이 당면한 곤경을 타개하는 길을 보여주고자 했다. 영국에서는 (12)의 외연에 대해 (13)의 내포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한다면, 프랑스에서는 (10)에서 Lanson이 제시한 실증주의에 대한 반론을 Thibaudet가 (14)에서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Lanson은 문학이 예술인 면모는 너무 복잡하고 예민해서 학문적 논리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상비평을 실증주의와 함께 받아들여야

고 영국은 문학이 대단한 문명국이므로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할 자격이 있다는 착각이 생기게 했다. 영어와 영문학이 식민지 지배의 이념 조작을 위해 어떤 구실을 했던가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Helen Tiffin, *The Empire Writers Back: Theory and Practices in Post-colonial Literatures*(London: Routledge, 1989) pp. 2-4에서 일부 거론했다.

29) “one of the greatest in the annals of the world’s literature”(p. 53)라고 했다.

30) 대단치 않은 내용이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원문을 들면, “An intense patriotism thus became one of the outstanding features of the age, and showed itself in many ways— in a keen interest in England’s past, pride in England’s greatness, hatred of England’s enemies, and extravagant loyalty to England’s queen”(p. 55)이라고 했다.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인상비평의 정통 후계자이면서, 인상비평이 산만하고 단편적인 논의에 머무르는 폐단을 시정하고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창조적 비평을 이룩하는 데까지 이른 Thibaudet는 새로운 관점으로 문학사를 서술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상비평이나 창조적 비평으로도 체계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문학사가 실증주의의 득점물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내용보다 표현을 더욱 중요시하는 비평가 특유의 문체를 사용하면서 문학사 서술방법을 논하고 시대구분을 새롭게 해 보이며 자못 논리 정연한 저술을 하려고 했다. 문학사로서 필요한 요건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논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개성 있고 다양한 문학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했다.

서론에서 시대구분의 방법을 제시한 것을 보면 특이한 사례나 들고 기발한 착상을 전개하는 관습 탓에 설명한 이해가 다소 어려우나, 거듭 읊미하고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만한 내용이 있다. 문학사의 시대구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고, 하나는 시대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이념을 정표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대 교체에 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가 각기 “설명적”(explicatif) · “교훈적”(didactique) · “조직적”(organisateur)인 특징이 있다고 했다. 시대구분의 방법에 관해 그 정도로 진전된 논의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자유로운 사고를 하면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하겠다.

Thibaudet 자신이 택한 시대구분의 방법은 세대교체에 의한 것이다. 1789년 혁명 이후의 문학만 다루면서, 1789년 세대, 1820년 세대, 1850년 세대, 1885년 세대, 1914년 세대로 시대구분을 했다. 혁명 이후의 문학이라야 고증을 일삼는 학자들의 도움없이 비평가가 자유롭게 거론 할 수 있다. 작가들이 누구의 간섭이나 후원이 없이 스스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문단을 형성하며, 문학 논쟁을 통해 주도권 교체를 경험한 근대문학이라야 세대교체에 의한 시대구분을 하기 적합하다. 한 세대를 이루는 작가들의 집단을 “제국”(empire)에다 견주었다. 가령 Lamartine, Vigny, Hugo 등을 주역으로 한 1820년의 “제국”이 무너지고, 1850년 세대 Baudelaire, Flaubert, Taine 등이 등장한 것을 세계사의 카다란 변동인 듯이 서술했다.

(13)과 (14)가 상통하면서 대조적이라고 한 것이 시대구분에서도 확인된다. (13)에서 Hudson은 영국인답게 한 시대의 문학에 한 사람씩 제왕이 있었다 하고 Shakespeare는 제왕 가운데 제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14)의 Thibaudet는 프랑스인이라 공화주의자이다. 프랑스혁명 이후의 문학만 대상으로 해서, 공화국이 하나 섰다가 무너지고 다음 공화국이 들어서듯이 문단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서술했다. 어느 경계이든 한 사람이 지배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았다. 제왕은 수명을 다해야 다음 제왕이 뒤를 잇지만, 공화국은 경변을 겪고 교체되었다. 1789년 · 1820년 · 1850년 · 1885년 · 1914년의 세대가 연속해서 등장했다고 했으니, 한 세대의 수명은 30년 정도이다.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문학의 주도권이 바뀌는 문단의 경변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런데 Thibaudet가 세대 교체를 통해 문학의 방향 전환과 시대 변화의 추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론을 전개한 것은 아니다. 30년마다 세대가 바뀌는 이유를 프랑스 근대문학사의 특성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사람의 일생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들어 설명했다. 머리말의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써서, 상식적인 소견을 모호하고 까다로운 표현으로 감쌌다.

문학사는 한 사람 생애 역사의 기본 사실을 상징적으로 구현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실이어서, 생명, 탄생, 혼인, 그리고 죽음에 해당되듯이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현상에도 해당된다.³¹⁾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적당히 비켜가면서 말이나 멋있게 해서는 학문 발전의 핵심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 20세기 전반기 문학사는 길게 쓰든 짧게 쓰든, 여럿이 합작을 하든 혼자 자기 견해를 펴든 19세기에 이미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문학사 서술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실이나 했다.

31) 원문을 들면 “L'histoire d'une littérature symbolise avec le fait élémentaire de l'histoire d'une personne: fait tellement élémentaire qu'il pourrait être incorporé à l'état civil et religieux comme la vie, la naissance, le mariage et la mort.”(Paris: Stock, 1936, p. xi)라고 했다.

5. 20세기 후반기의 파제

마르크스주의 문학론은 기존의 문학사관이 시민계급의 관념론에 치우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거듭 비판하고,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유물론에 입각해 과학적으로 해명하며 문학사의 진보를 정당하게 파악하는 당파성의 관점까지 갖추어 문학사 서술방법의 오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것 같았다. 그러나 19세기 말에도 20세기 전반기에도 마르크스주의 문학사관을 문학사 서술에서 실제로 구체화한 볼 단한 업적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혁명후의 러시아에서는 마르크스주의 문학사관을 적용한 러시아문학사를 힘써 마련했을 터인데, 그 성과를 바로 알지 못해 안타깝다. 그러나 필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마르크스주의 문학론에 러시아에서 이룩한 문학사 서술의 모법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아, 학문적 업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교재용 러시아문학사 정도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듦다.

마르크스주의 문학론에서 러시아 학자들보다 오히려 앞장을 서고 대단한 업적을 이룩한 Georg Lukacs의 경우를 들어 구체적인 고찰을 해보자. Lukacs는 마르크스주의 문학론이나 미학의 여러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고찰을 하고, 유럽 각국문학에서 필요한 사례를 찾아 깊이 있는 분석을 했으면서 문학사를 일관되게 서술하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 문학사라고 할 것은 (15)만 남겼는데, 간략하게 쓴 독일근대문학사이고, 그나마 따로 출판했던 소책자 둘을 합친 것이다. 문학사의 이론 전개에 대단한 열의를 보인 데 비해 문학사를 실체로 서술해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한 성과는 너무나도 빈약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Lukacs가 문학이론가이기만 하고 문학사가가 아닌 것은 개인적 취향이므로 깊게 시비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모르나, 저기 한 이론이 바로 문학사의 이론이고, 이론과 실천의 합치를 중요시한 이론이므로 문학사 서술을 실체로 해 보이는 실천을 배제한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없다.

(15)를 검토해 보면 문학사 서술을 기피한 이유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 마르크스주의 문학사관은 하부구조라고 한 사회적 트대와 상부구조

라 한 문학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유물론의 원칙과 문학의 반동성과 진보성을 판별하는 당파성의 원칙 두 가지로 형성되어 왔는데, (15)에서 는 유물론의 원칙에 의한 작업은 뚜렷하지 않고 당파성의 원칙만 중요시되고 있다. 독일 계몽주의 문학에 대해 논하면서 어떤 사회경제적 토대에서 어느 계급에 의해 계몽주의 문학이 형성되었다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독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계몽주의 문학이 어떤 진보적인 구실을 했던가 찾아 평가하는 것을 기본 과제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독일의 근대사가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와 어떻게 같고 다른 과정을 거쳤는가 밝히는 데 힘썼을 따름이고, 문학의 양상을 특별히 주목하면서 독일 문학의 독자적인 전개를 논하려 한 것은 아니다. 진보와 반동을 오직 정치사의 기준에서 규정했으며, 문학 나름대로의 진보가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졌다고 인정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학사를 따로 써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데, 이에 대한 대답을 머리말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마련해 두었다.

문제는 독일이 과거에 걸어온 길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이러한 평가는 장차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데 하나의 지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책은 이처럼 크고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단지 부분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 문제 자체는 독일사 전체를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입장에서 재검토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한 부분일 뿐이다.³²⁾

독일사 전체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가장 크고 긴요한 과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독일 문학사가 필요하다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전체적인 과업이 만족스럽게 성취되면 한 부분만 다루는 데 그치는 문학사 서술이 무용하게 되거나, 그 성과를 적용해 문학사의 특수성을 해명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두 가지 추측 가운데 뒤의 것이 더욱 타당하다. 역사 일반의 전개를 하부구조에서부터 소상하게 밝힌 성과가 있으면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제대로 따져 유물론의 원칙에 합당한 문학사를 쓸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유물론의 원칙은 유보해 두고 당파성의 원칙이나

32) 반성완, 임홍배 역, p. 7.

살려, 문학사를 통해 정치적 반동과 진보의 역사를 점검하면서 역사 전체 해명의 일부분을 미흡하나마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문학을 자료로 해서는 역사 전체를 볼 수 없고 상부구조 안에서만 돌아야 하니 여러 모로 미흡하지만, 그 정도의 노력이라도 아쉬다고 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문학사가 이룩되면 문학과 사회,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반동과 진보 등에 관한 근본적인 난문제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거에 해결되리라고 선전해온 것은 정당하다고 판명되지 않았다. “우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문학사가 이룩되면” 하는 가정이 총족되지 않았으니 결과를 검증할 수 없다. 마르크스가 나고 자란 나라 독일 역사 연구가 1950년대에 이르도록 문학사 서술의 근거로 삼을 만큼 연구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 더구나 유럽이 아닌 곳의 사정은 더욱 기대 이하일 것이다. 그러나 하부구조 연구의 성과 탓만 하고 말 것은 아니다. 미흡한 대로 문학사를 실제로 써서 문제점을 검토하겠다는 의욕이 모자란다. 실천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론을 전개하면서 스스로 표방하는 바와는 다르게 이론을 위한 이론을 회통하면서 세월을 보낸다. Lukacs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도 항상 원칙론만 거듭 논의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 문학론을 시비할 때에도 문학사 서술의 실상은 문제밖이다.³³⁾

20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이론 문학사는 아직 많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론적 논란에 관심이 적고 무난한 결충을 하는 데 그친 것이 대부분이다. 영국에서도 마르크스주의 문학론을 둘러싼 논란이 얼마쯤 있었지만 문학사 서술에 자극을 주지는 못했다. (16)과 (18)의 관심은 사소한 시비거리에 있다. (16)에서는 (13)의 입각점을 다시 거론했다. 전문가들의 세부적인 연구가 특징을 이론 시디에 한 사람이 문학사를 온통 쓰는 것은 무모하고 별난 짓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 바를 토로하고 주요 작가의 등급도 바구어놓는 자유를 누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책 제목을 “*A Critical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라고 했다. 프랑스의 (14)에 상응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론적

33) 근래에 John Frow, *Marxism and Literary Histor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문학사 서술의 실제 사례는 하나도 거론하지 않았다.

인 고민은 하지 않는 대신에 영국인다운 양식을 발휘해 읽기 쉬운 책을 썼다. (18)은 (12)처럼 방대하지는 않으면서 알찬 총서로 기획되었다. Baugh란 사람이 전체의 편자가 되고 네 권을 각기 다른 필자가 일관되게 쓰게 해서, 인원 동원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런 협동을 통해 사실 정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 이외의 다른 의도는 내보이지 않았다. 영문학사는 문학사의 이론에 관한 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다시 한 몫 했다.

영국과는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서비스가 많다. (17)•(19) 두 차례 마련한 총서가 자료 집성을 다시 한 것으로 의의를 삼지 않고 문학사와 사회사의 관계에 관한 오랜 논란을 새롭게 해결하려는 의도를 구현하게 기획했다. 마르크스주의 문학사관을 어떻게 평가하고, 문학사 서술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심 문제이다. (17)의 집필에 참여한 수많은 논자들은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연구센터(*le 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s Marxistes*)를 이루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자처했다. 그런데 애써 이룩한 저술 (17)의 머릿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를 따랐는가? 우리와 함께 토론에 기꺼이 참여한 역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해답은 이렇다; 아니다.

아니다. 이 불문학사는 마르크스주의를 따르지 않았다. 왜? 지나간 세기의 연구를 개척한, 이용 가능한 업적이 아직은 그 시기 문학 현상의 토대를 마르크스주의로 유효하게 분석하는 데 쓸 만큼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³⁴⁾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 문학사를 실제로 서술하는 것이 자기네 후계자들의 시대에는 가능하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34) 원문을 들면 “Ce Manuel serait-il marxiste? Les historiens, les économistes qui voulaient bien participer aux discussions nous ont aidés à dégager une réponse. Cette réponse fut: non. Non cette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ne sera pas marxiste. Pourquoi? Parce que les travaux en cours pour les défrichement des siècles passés ne sont pas encore arrivés à un degré de connaissance concrète assez avancée pour servir de base à une analyse marxiste valable des phénomènes littéraires concomitants”라고 했다. (Paris: Editions Sociales, 1971, p. 7)라고 했다.

프랑스 사회사를 연구하는 작업을 한 세기 동안이나 별다른 제약없이 계속해서 하고서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머리말을 지나 본문으로 들어가면 항목 구분이 어수선하고 내용이 잡다해 갈피를 잡기 어렵게 한다. 문학과 관련된 사항을 닥치는 대로 열거한 느낌을 주고, 문학사와 사회사를 연결시켜 논하려고 하는 문학 쪽의 노력이 오히려 엉성하다. 가령 중세 때의 계급구성과 문학갈래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를 시도하지 않았다. 집필 참가자가 너무 많고 편자의 설계가 치밀하지 못해 잡다한 논의만 뼠고 말았다.

(19)에서는 그런 폐단을 시정하려 했다. (18)의 첫 권 중세문학편 편자 두 사람 가운데 하나인 Jean Charles Payen이 (19)의 첫권 중세문학의 저자인 것을 보면 그 두 총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18)이 미처 완결되지 않았을 때 (19)가 나왔다. (19)는 공동의 계획에 따라 한 사람이 한 편씩 맡아 집필했으므로 (18)처럼 어수선하지 않다. 총서 전체의 기획은 Claude Pichois라는 사람이 맡고, 그 취지를 밝히는 머리 말을 썼다. 특히 중요한 대목을 들면 다음과 같다.

문학은 그 자체만이 아니며, 사회사의 반영이다. 그런데 아주 다양하고 무한히 미묘한 방식으로, 분명히, 특별하게 반영한다.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재능, 다른 무엇으로 환원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재능을 두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능은 그것에 진정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을 찾아, 문학적 사실의 사회적 좌표에 대한 면밀한 선형 분석에서 분리시켜 야 더욱 돋보이지 않을까? 우리 과업이 그래서 다른 분야 역사가들의 과업과 만나게 된다.³⁵⁾

35) 원문을 들면 “La littérature n'est pas un en-soi. Elle est une manifestation—privilégiée, certes, par sa variété et ses nuances infinies—de l'histoire des sociétés. Cette conception ne signifie pas qu'on doive négliger le génie, l'irréductible et irremplaçable génie, qui reste pour nous l'essentiel. Toutefois, le génie ne se voit-il pas mieux quand il se dégage—and pour ce qui lui appartient véritablement—de l'analyse préalable et minutieuse des coordonnées sociologiques du fait littéraire? Nos préoccupations rencontrent donc celles qui conduisent les historiens dans d'autres domaines.”라고 했다. (Paris: Arthand, 1970, vol. 1, pp. 9-10)

그런 관점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권에서 일제히 시대마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부터 살피고, 문학의 전반적인 양상이나 주제를 논한 다음에 문학갈래, 작가, 작품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을 했다. 그래서 사회사와 문학사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보편적인 양상과 개별적 가치를 함께 다루려 했다. 그렇게 한 것이 오랜 논란에 대한 최상의 결론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집단, 세계관, 문학갈래가 각기 서술되어 있을 따름이고,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론이 마련되지 못했다. 사회사와 문학사를 병행시켜 다루는 데 그쳤다. 시대가 내려오면 주요 작가와 작품을 논하는 것으로 문학사 서술을 대신하는 종래의 방식과 더욱 가까워졌다. 연구가 부족하고 이론이 미비한 결함을 드러내지 않고 무리하지 않은 철총을 하는 데 만족했다 하겠다.

(20)도 무엇이 문제인가 의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사람이장을 나누어 쓴 공저이지만,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표명한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려 했다.

문학의 발전과정을 문학사적으로 파악하는 출발점은 문학 특유의 미학적 성과와 사회적 역할을 진보하는 역사 과정 속에서 밝히기 위해 문학사의 토대를 사회사적으로 설정하는 일이 된다. 이 경우 사회사적 토대설정이라는 말은 문학을 정치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소여들’ 속에 사회학적으로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과정들을 역사적 요인들로부터 도출해낸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사의 대상은 오직 미적 산물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국한된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고찰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적 발전과 사회적 변천이 상호작용적으로 관계 맺음으로써 사회사적 현실과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문학의 미학적 질이 기술될 수 있고 이것이 동시에 현실 속에서 사회적·실천적 계기로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³⁶⁾

이런 원칙을 실행하는 최상의 방법은 문학갈래들의 생성과 의의에 관한 사회사적 고찰을 하는 것이다. 촉점을 잘 맞추었다고 하겠으나, 문학갈래의 개념이 너무 다양하고 산만하며, 문학갈래들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문학담당총의 교체에 따라 새로운 문학 갈래가 창출되는 과정에 관해서 몇 차례 산발적인 논의를 하는 데 그쳤다. 그렇지만, (19)와 (20)에서 택한 방침이 서로 거의 같아 오랜 논란의 해

36) 허창운 외 역, p. 9.

결책에 대해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Taine의 회당을 살리고, Lanson의 파탄을 수습하는 길이 이제야 발견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 문학사관을 수용해서 그 독단을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든 (20)이든 그저 이론이 미비하고 문학사 서술을 실제로 한 성과가 산만하다. 한 나라 문학사를 그럴듯하게 엮는 터 단죽하고, 상호관련을 의심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문학사의 일반이론이기에는 더욱 모자란다.

6. 마 무 리

자국문학사라는 개념이나 서술 방법은 근대 유럽의 산물이다. 근대 민족국가를 먼저 이루한 유럽 각국에서 자국의 문학사를 정리해 민족의식의 근거를 밝히고 문학의 발전 성과를 자랑했으며, 사회와 문학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마련했다. 그 업적이 근대 민족국가를 뒤늦게 이루하기 위해 애쓴 다른 여러 곳에 널리 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럽의 전례를 따르며 배워야 자국문학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시기가 오래 지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각국문학사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슨 문제에 부딪혔으며, 어떤 성과에 이르렀는가 계속 살필 필요가 있다. 유럽의 문학사와 우리가 서술하는 문학사 사이의 간접적이고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관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우리가 할 일을 짜집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진요한 과업이다.

유럽이 알았다는 것을 모범이 되는 완성형을 보여주었다고 이해하고 마는 낡은 견해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 문학사 서술에서 앞서 나가면서 어떤 고민이 생겼으며, 고민 해결을 위해 방향전환을 한 결과 어떤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던가 알아서 우리 스스로 해로를 결정하는 테 치침으로 삼아야 한다. 19세기 중엽까지 유럽에서 이론 문학사가 문학의 발전을 역사 일반의 진보와 광범위하게 연결시켜 혁명하려 하다가 역지주장을 늘어놓은 잘못을 시정하려고 거듭 애쓴 성과가 또한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문학을 문현으로 보는 실증주의, 문학 그 자체에 대한 주관적·비평적 접근,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 등이 각기 문학사 서술의 정당한 모형을 제시하겠다고 경쟁한 과정이 탕평론의 어려움을 깨닫게 하는 데 오히려 기다란 의의가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문학과 사회가 서로 관련되는 양상을 무리하지 않게 인식하려는 시도가 나타나 비교적 온당한 방향이 잡힌 것 같다. 그러나 미해결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생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 토론의 열기가 없으며, 안이한 타협에 머물 조짐이다. 문학사를 다시 쓰기 위해서 애쓰는 의욕 자체가 크게 감퇴되었다. 요즘 문학이론에 대한 논란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학사의 이론은 거의 없다. 마르크스주의 문학론이나 문학사회학조차도 문학사 서술에서 실제로 제기되는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론과 이론 사이의 논란에 몰두하고 있다. 개별적인 연구가 아닌 포괄적인 탐구는 문학이 아닌 문학론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론을 위한 이론을 덧보태기만 한다. 그것은 발전이 아니고 침체이다.

문학사를 거듭 다시 쓰면서 미해결로 남겨둔 과제를 해결하는 더욱 큰 진전은 유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나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 민족국가 수립이 늦어서 유럽의 전례를 뒤따르던 아시아 각국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제서야 크게 고조된 의욕과 고민을 밀천으로 선진적인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한창 시절 유럽에서 세계문학을 윤통 다 안다 하고 문학의 이론을 주저하지 않고 수립하려 했듯이, 필자는 지금 각국 문학사 서술의 기본 방향에 대해 거대한 규모의 논란을 벌인다. 상승기에는 시야가 트이는 것이 서로 같다. 크게 보다 보니 논의가 성근 점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필자는 유럽의 전례를 알아 그 성과와 실패를 간파하면서 아시아문학 또는 한국문학에서 더욱 발전된 작업을 하고자 한다. 한 단계의 후진이 다음 단계에서는 선진이다.

유럽의 학자는 이 글에서처럼 각국의 문학사 서술의 경과와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논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아시아 각국의 경우까지 합쳐서 다루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렵다. 유럽에서는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이유는 필자가 다른 문명권에 속하고 유럽의 한창 시절과는 다른 시대에 살기 때문이다. 세상은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므로 선진과 후진이 역전되는 것이다. 유럽의 학문을 받아들이기만 할 때에는 이웃의 일본인이 앞섰다. 그러나 이제 유럽의 전례를 넘어서서 세계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에서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선진과 후진의 관계도 역전되고 있다.